

江村 마을, 강원도 춘천군 남산면 강촌리. 춘천호반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굽어보며 우뚝 솟아 있는 삼악산과 구곡폭포, 등선폭포의 장관과 이웃해 있는 마을로 따스한 정감이 손에 묻어날듯 아름다운 이름이다. 늘 푸른 산과 맑은 강의 어우러짐이 그대로 한 폭의 동양화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마을 어귀에 가만히 서 있으면, 한편의 서정시 또는 한 곡의 노래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질 것 같은 감동과 만난다.

강촌에 살고 싶은 마음은 꼭

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바로 며칠전 130mm 안팎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봄여름 내내 강가에 모이고 쌓여 썩어 가던 많은 쓰레기를 하류로 쓸어 내려 갔던게 그나마 다행(?)일까.

비닐 봉지와 집계를 동원해서 행락객들이 남기고 간 헌데딱지 같은 휴지와 오물을 쫓아 담으면서 가슴에 고여드는 생각의 파편들은 강바람의 상쾌함에 상처를 입히고 있어 유감이다. 즐기고 노는자 따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힘들여 치우는자 따로. 이것은 분명 공평한 처사는 아니다.

자연의 품속에서 신선한 산소, 맑은 강, 서늘한 그늘, 안전한 휴식을 즐기려 하는 자들이여! 놀고 즐기려면 가장 기초적인 소양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보기 흉한 자국을 남기는 저질의 놀이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 받은 은혜,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이 물려 주어야 할 자연 환경이 아닌가.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 살이처럼 일시적으로 그 관리를 위임받는데 불과한 것이다. 도시화, 과학화, 고도 산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면

江村의 여름

시인 묵객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바램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초가삼간 오두막 집을 짓고, 돌레에는 사립문이 달린 울타리를 둘러치고, 앞뜰에는 푸성귀를 가꾸고, 뒷곁에단 벼슬이 빨개서 사뭇 정열적인 토종 닭 몇 마리 놓아 기르며, 야박하기만한 세상 인심에 허구헌날 마음 상해하지 않고, 물처럼 유유히 살면 좋겠다는 소망은 누구든 품어봄직하지 않은가.

얼마전 강촌 마을 강변 산책로에서 주말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여가저기 널려진 휴지를 줍는 캠페인에 참가했다. 올해는 장마다운 장마도 없이 짜증스러

金 慶 一
(수필가)

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거기에 동화하는 일보다 목전의 작은 이익, 편리만을 앞세운 도전과 파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람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날을 늘 생각하라” 서해 바닷가 남양만 간척지에서 모든 살이의 모범 답안을 그려내고 있는 두레 마을 동구에 큼직하게 내걸린 계명을 가슴으로 읽으며 느끼는 진한 감동. 거기서 우리나라 오던 겸손함을 항상 기억하고 싶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파괴쳐진 자리에 괴물 군단처럼 우뚝우뚝 자리매김 해 버린 흉한 물골의 시멘트 구조물, 그 삭막함이 드리우는 그늘을 벗어나 안온하게 폭 파묻힐 수 있는 자연의 보고. 강원도의 수려한 산하를 도회지 사람들이여, 더불어 함께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번 쓰고 버릴 1회용품처럼 홀대하지 말고, 다시는 뒤도 안돌아 볼 것처럼 외면하지도 말라. 쓰레기나 오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구 버리고 한사람 한사람이 버리는 오물의 양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인 자리를 보라. 우리의 후세는 커녕 자신이 다시 찾아도 몇 번은 더 찾아야 할 아늑한 휴식과 고요한 마음의 정처(定處)가 될 자리에 그득히 쌓여 향기와 거리가 먼 고약한 냄새를 마구 피워내고 있는 이것들을 어찌할 것인가.

“사람아, 사람아, 이것이 바른 삶의 길. 자연과는 경외의 마음으로 마주 서고 이웃들과는 따뜻한 눈빛을 주고 받으며 비스듬이 기대어 체온을 느끼며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는 생판 다르게 아닌가” 꿈속의 길처럼 북한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끼고도는 경춘가도. 강변 지형의 생김생김에 맞게 혹은 산자락 한 무더기를 베어내고, 혹은 육교를 얹어 좁던 길을 4차선으로 넓혀 놓은 곳, 사계절 어느 때고 행락 인파를 실은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 아니면 5년 전 쫓이던가, 머지 않아 우리도 “마이카” 시대를 구가하며 여유 만만한 생활을 즐기며 사는 날이 올거라는 예언을 들으며, 이것은 고도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달콤한 보랏빛 선전을 퍼는 것이려니 하면서, 그런 세상이 어느 천년에 눈앞에 다가올 거냐고 비아냥댔던 게 생각난다. 그러나, 비록 나 자신은 아직 그 대열에 끼일 엄두조차 못내고 있기는 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듯한 자가용을 보기 좋게 굴리고 다니고, 가끔씩은 그걸 얻어 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곤 하는 걸 보면서, 당시는 믿어지지 않아 허황스럽게만 보이던 말이 결코 허사(虛辭)만은 아니었구나 하고 감탄한다.

갑자기 늘어나는 자가용 승용차의 홍수 사태, 그러나 순기능이 아니라, 때로는 역기능이

작용하기도 한다. 도로 사정의 개선이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바람에, 교통 사고가 늘어나고, 이름을 들으면 쉽게 알만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비통에 잠기곤 하는 걸 보면서, “인명재차(人命再車)”라는 신종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감자와 바위의 합성어쫘으로 여겨지는 우리 강원도. 푸대접보다 더한 무대접을 서운해 하며 이런 저런 항변을 도모해 보지만, 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 해도 강변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 오물들을 집게로 집어 봉지에 퍼 담으며, 느끼는 심사가 곱지는 않다.

천하의 명산으로 일컬어지면서 내외국인의 아낌을 받고 있는 설악산 입구에는 “가지고 가는 것은 추억만, 남기고 가는 것은 발자국만”이라는 자못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팻말이 서 있다.

강촌의 여름이 남긴 흔적, 저질 놀이 문화의 찌꺼기처럼 나뒹구는 휴지와 오물이며 가라.

참다운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즐거운 추억이 깃들 자리에 발자국이 아닌 불상 사나운 헌데 딱지는 남기지 않는 슬기로운 너와 나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날도 멀지 않아야만 하리라고 생각해 본다.